디지털 통상 국제컨퍼런스
개 회 사

2022. 12. 12 (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경제의 미래와 통상의 역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어린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 말씀을 전해주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오늘 컨퍼런스의 사회 · 발표 · 토론자 역할을 맡아주실
모든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디지털통상]

최근 글로벌 통상의 중심축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기초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에서,
디지털, 공급망, 탄소중립과 같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신통상 이슈에서의
규범 연대와 산업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시장의 국경간 구분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고,
데이터는 정보로서의 단순 가치를 넘어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생산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지금 디지털 패권전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국의 디지털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개방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에게 있어서도,
디지털 통상은 앞으로의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아젠다 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통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터넷 이용률 약 98% 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 2021년 기준 97.6% (통계청)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의 IT 제조업,

그리고, 전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컨텐츠가 있으며,

올해 9월 윤석열 대통령님이 뉴욕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디지털혁신의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확고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상당국은
관계부처와 힘을 합하여
적극적인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❶ 첫째, 글로벌 Rule-Setting 과정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기존의 통상규범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수많은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WTO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대 협력체에서의 통상규범은
국제질서로서 자리잡아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WTO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는
87개에 이르는 국가가 참여하여
60여개의 방대한 조항을 다루는,
“Global Rule”을 만드는 중요한 협상입니다.

협상이 점차 가속화되어 가는 가운데,
주요국들과 공조를 통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진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60여개 조항중 8개 조항** 타결('21.12월 기준)

** '22년 4월 이후 화상에서 대면회의 중심으로 전환, 12월 3개 조항이 사실상 타결되었고, '23년에는 데이터 관련 핵심조항들이 소그룹에서 논의예정

❷ 둘째,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발효할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GDP 85%를 차지하는 59개 국가와
FTA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네트워크 기반과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촘촘하고도 광범위하게 연결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11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서명을 통해
순조로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의
DPA를 통해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한싱 DPA는 우리의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의
모델 협정이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싱 DPA에 이어,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에 첫 가입국이 될 것입니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중인
환태평양 디지털 경제협력체로서,
최근 캐나다와 중국의 가입논의가 개시되는 등
글로벌 협력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DEPA에의 가입협상을 빠르면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다양한 권역으로의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장에
지렛대로 활용하겠습니다.

* 싱가포르(아세안), 뉴질랜드(대양주), 칠레(중남미), 캐나다(북미), 중국(동북아)

어제 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IPEF 디지털 챕터도 매우 중요합니다.

IPEF 디지털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디지털 통상규범 선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규범과 산업협력 논의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U와도 디지털 통상협력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EU는 한국의 제3의 교역 대상으로서,
최근 디지털 교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대 시장인 반면,

2011년 체결한 한-EU FTA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간 대화에 관한
단 2개 조항만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합의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 을 바탕으로,
한-EU간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 디지털 경제 전환을 추진하는 주요 경제권과도
폭넓게 디지털 통상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❸ 셋째, 글로벌 통상규범 발전에 발맞춰 국내제도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적 여건도 선진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데이터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시대 핵심 경쟁력 자산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세계적인 플랫폼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소비자 편익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간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호환성(compat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바,

우리 디지털 산업이
글로벌 통상 규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디지털 통상협정이 가이던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❹ 넷째, 디지털 통상의 시대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은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또는
미국, 중국, 동남아 시장의 주요 플랫폼과 협업하여,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재 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중소벤처·정부부처로 구성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하며,
미국, 싱가포르 등 7개국에 운영중인 K-스타트업센터를 통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산업부) ('22) 전국 9개소 → ('23) 15개소 → ('25) 30개소

** (과기부·중기부·산업부) 디지털 대기업, 중소벤처,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수출 개척단' 운영('23~)으로, 대·중소 해외진출 연대모델 발굴 및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중기부) 해외 진출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창업생태계 진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스웨덴·핀란드·프랑스·미국·인도·싱가포르·이스라엘 7개국에 운영중

❺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도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급격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 현장은 물론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 통상 인력양성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대학원 내 특화 과정을 운영하여 석박사급 전문가를 키우는 한편,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을 개설하고,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온오프라인 강좌를 운영하는 등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산·학·연 각계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통상 정책은
정부 혼자서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이해를 가지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니즈를 밝히고,
각계 전문가가 통찰력과 지혜를 공유하는
협력의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 여러 계기를 만들어
많은 기업과 전문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소통' 은 늘 중요한 목표로 삼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급격한 변화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변화 속에
성공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변화의 풍랑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경은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완벽하다는 것은 자주 변화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통상의 기회와 도전을 고민하는 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변화의 해법을 찾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